

광주 핫플레이스 동명동 카페거리 갈등도 '핫하네'

건물 신증축·상가 유입으로 원주민들 민원·소음 피해 호소 동구청·노동청 중재 역할 손 놓아...교회 신축 놓고도 '시끌'

광주 도심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동명동'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어서는 술집 등 각종 상가와 건물 신·증축,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소음·공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관할인 동구청과 광주지방노동청 등은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으며 중재 역할을 외면하는 등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동구와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동명동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난 4월부터 자택 옆에서 카페 영업 등을 목적으로 신축 중인 3층 건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을 동구와 노동청 등에 제기했다.

건설업체측이 건물을 A씨의 자택과 너무 붙여 공사하는 바람에 철구조물이 A씨의 담벼락 안까지 넘어왔다는 것이다. 또

공사인부가 철구조물을 올라가며 허리에 매달고 있던 공구와 부딪혀 A씨 자택 기와와 유리창 일부도 깨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개월간 건설업체에 항의했지만 공사는 강행됐고, 참다 못한 A씨는 안전 전보 미착용과 안전발판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건설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공사중지명령 7일을 받았다.

A씨는 "노동청이 언론 등을 통해 추락 방지 안전 발판 미설치 공사현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홍보해놓고는, 정작 주민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도 공사중지명령만 잠깐 내렸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구청에도 수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바뀐 이후 업체측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도 역설하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토지 소유주가 당초 건물을 5층으로 지으려다 3층으로 줄이는 등 A씨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위법한 사실도 없는 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사중지명령도 민원이 제기된데다, 좀 더 안전한 공사를 하라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동명동 원주민인 C씨도 오래된 이웃집을 개조해 들어선 술집과 카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C씨 사유지에 술집과 카페 손님들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 내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C씨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간접 흡연 고통을 시달리고 있다.

가족 중 흡연자가 없지만, C씨 10대 아들은 최근 학교에서 진행한 일산화탄소 검사에서 '담배 연기가 많은 장소에 거주하는 것 같다'는 측정결과를 받기도 했다.

원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상가 주인들의 태도도 원성을 사고 있다. 최소한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이 타인의 집에서 피우고 버린 담배꽂초 정도는 청소해 주는 게 당연할 법도 하지만, 가게 앞 조차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C씨는 1차적인 책임은 상가 주인에게 있지만, 원주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영업·건축 허가를 내준 동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동명동을 대표하는 한 교회도 최근 신축 문제를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은 해당 교회는 기존(연면적 3511㎡)보다 2.5배 더 큰 규모(연면적 1만1634㎡)로 교회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명동 일부 주민들은 "자극력

을 앞세워 초대형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교회측은 현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다 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늘어나는 고정신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회측은 또 신축 건물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원주민들과 공유하고, 커뮤니티 공간 등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교회신축 계획은 지난 8월말 동구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민 반발을 의식한 동구는 일단 건축허가 절차를 보류한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건물 신축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서 "동명동이 활성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원주민의 반발도 심해져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최근 6년간 1.1% 불과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공소제기) 인용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받을 기회를 요청하는 제도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청된 재정신청은 9만651건이다. 이중 공소제기가 결정된 것은 685건으로, 0.75%의 재정신청 인용률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0.82%,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등이다.

광주고법은 같은 기간 9361건이 재정신청 됐으며, 이 가운데 1.11%인 101건만 공소제기가 결정됐다.

연도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3년 1730건 중 47건으로 2.92%, 2014년 1803건 중 17건(1.01%), 2015년에는 2339건 중 37건(1.6%), 2016년 2180건 중 8건(0.47%), 2017년 2318건 중 24건(0.9%) 등이다.

송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률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장치라는 점에서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자원생 지속 학대 물의 광주 보육시설 또 다른 아동학대 은폐 의혹 제기

"생활지도원이 2명 학대" 제보 원장은 사건 경위 보고 안해

허락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려하는 등 보육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한 보육시설(광주일보 2018년 9월 27일자 6면)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광주지역 한 보육시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YWCA 산하인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요보호아동(고아)인 3~4세 유아 2명을 학대했다.

학대사실은 아들 아동과 같은 방에서 지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보육원생들이 보육시설 상담원 등에게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제보 보육원생들은 상담 과정에서 "생활

지도원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2명을 손가락으로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김치 등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엉덩이 등도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학대 내용을 보고 받은 해당 보육시설 원장은 학대 사건 경위를 운영기관인 광주 YWCA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생활지도원 교육과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보에 3일 해당보육시설 원장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이미 해당 보육시설의 학대행위를 조사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조사관을 광주로 다시 보내 피해 아동을 면담하는 등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돌진...9대 파손
3일 오전 8시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박모(6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박씨가 경상을 입었고, 주차돼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 중이던 박씨는 차량을 출발시키려던 손모(67)씨의 차량과 부딪힌 뒤 주차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다시 재판 받는다

해남지원서 재심 개시 확정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41)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확정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

버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당시 한 버스승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아버지 명의로 다수의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험금을 노린 김씨가 아버지를 죽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당시 이 같은 범행을 자백한 김씨는 수사과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으며 무죄를 호소했다. 또 보험도 가입 후 2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성추행 사실도 전면 부인한 김씨는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아버지는 성추행범도 아니다"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여수 승용차서 남성 3명 숨진 채 발견

3일 오후 1시54분께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바닷가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승용차 안에는 변개판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

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남성 3명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주유비 때먹고 시속160km 도주

○주유비를 때먹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도주극 끝에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경찰서행.

○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순천시 승주읍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5만원 어치 기름을 넣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 가 추격에 나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20여분간 최고 속도 160km/h를 넘나드는 도주극을 펼쳤다는 것.

○인근 곡성까지 도망쳤다가 되돌아온 김씨는 도로를 막은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붙잡혔는데,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순찰차에 탄 경찰관 2명과 사고를 낸 김씨는 모두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면서 "순찰차 충돌과 관련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